

차태현·정수정 “경찰수업” 가슴 뭉클, 유쾌한 순간 많았다”

KBS 2TV 월화극 ‘경찰수업’ 종영 소감

작품 위해 애쓰신 분들에 감사의 말 전해

배우 차태현이 KBS 2TV 월화드라마 ‘경찰수업’을 종영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차태현은 6일 소속사 블러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어느새 ‘경찰수업’이 종영을 맞았다. 처음 ‘경찰수업’ 대본을 읽었을 때 단숨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나고, ‘동만’이 가진 우직함과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작품을 위해 애쓰신 감독님과 스태프분들, 그리고 함께한 선배 배우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덕분에 가슴 뭉클한 순간도, 또 즐겁고 유쾌한 순간도 많았다”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매주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란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차태현은 극 중 형사이자 경찰대 교수인 ‘유동만’ 역을 연기했다. 뛰고 구르는 온몸 열연을 물론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쾌한 카리스마를 드러내며 베테랑 형사의 면모를 그려냈다. 여기에 소중한 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진심과 의리를 진정성 있는 눈빛으로 담아냈다. 차태현은 오는 11월 첫 방송되는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다수의 수다’로 시청자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또 ‘경찰수업’에서 ‘오강희’ 역을

연기한 배우 정수정도 종영 소감을 전했다. 정수정은 이날 소속사 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촬영 두 달 전부터 캐릭터 준비를 시작해 5개월 동안 촬영,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강희로 살았기 때문에 드라마가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다”며 “‘경찰수업’을 통해 더 이상 오강희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도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정수정은 드라마 속 캐릭터와도 높은 싱크로율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때로는 풋풋한 스무 살 새내기 자체였던 인물이라 그런 두 가지 매력 모두 잘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오강희를 연기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나 미련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흔히 접하지 못한 경찰대 신입생이라는 캐릭터가 신선하게 느껴졌다. 오강희와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배우로서는 경찰 제

복도 입어보고, 유도도 배우는 등 지 금껏 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했고 한 사람으로서 좋은 사람들을 얻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강수대’로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발산한 진영, 이달, 유영재와의 호흡에 대해서는 “비슷한 또래여서 학교 가는 기분으로 촬영장에 갔다. 현장에서 같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즐겁게 촬영했다”며 화기애애했던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끝으로 정수정은 자신의 또 다른 스무 살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경찰수업’을 사랑해준 시청자들에게 “열심히 촬영한 만큼, 많이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수정은 극 중 꿈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오강희 역을 맡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는 뜨거운 청춘의 면모부터 당찬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와 사랑하는 이 앞



에서 드러나는 어린 내면까지 그려냈다. 유도 선수 출신이라는 설정을 위해 유도의 기본 자세와 낙법 등 연습에도 매진하며 캐릭터를 소화했다. 뉴스

배종옥, ‘어사와 조이’ 출연...옥택연·김혜윤과 호흡



마을의 리더 ‘덕봉’ 연기 배우 배종옥이 안방극장에 컴백한다. 6일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측은 오는 11월에 첫 방송 예정인 tvN 15주년 특별기획 ‘어사와 조이’에 배종옥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어사와 조이’는 영결절에 등 떠밀려 어사가 돼 버린 허우대만 멸절된 미사가 도령(옥택연 분)과 행복을 찾아 돌진하는 기벌부인(이혼녀)(김혜

윤 분)의 명랑 코믹 커플 수사소다. 배종옥은 극 중 대장군의 기질을 가진 여성 공동체 마을의 리더 ‘덕봉’을 연기한다. 핍박 받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아 공동체 마을을 이뤘던 살며 마을의 리더 겸 멘토로 활약하는 캐릭터다. 배종옥은 올해 초 종영한 tvN 퓨전 사극 코미디 ‘철인왕후’에 이어 세 번째 사극 작품을 차기작으로 선택했다. 한편, 배종옥은 지난달 12일 성료한 연극 ‘분장실’에 출연했다.

격투 서바이벌 ‘파이트 클럽’ 첫 화부터 조회수 급상승

하루 만에 통합 120만 조회수 달성



웹예능 ‘파이트 클럽’이 첫 화부터 하루 만에 통합 120만 조회수 달성과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에 등극했다. 뉴스

서바이벌 웹예능 ‘파이트 클럽’이 하루 만에 통합 120만 조회수 달성하고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2위에 등극했다. ‘파이트 클럽’은 각자 다른 경력을 가진 14명의 참가자들이 168시간의 합숙 기간 동안 파이트 머니 1억 1000만 원을 걸고 펼치는 격투 서바이벌이다. 첫 화부터 참가자들의 합숙소 입소와 첫 대결까지 속도감 있는 전개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영화 세트장 방불케 하는 촬영장 스퀘어와 과감한 편집, 몰입도를 높이는 격투 톨 역시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KBS, 코미디 프로그램 부활...‘개승자’ 다음달 첫 방송

‘개그’·‘계승자들’ 합친 이름

KBS 새 코미디 프로그램 ‘개승자’가 오는 11월 공개된다. 5일 KBS는 “새 코미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시청자 공모전을 거쳐 ‘개승자’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개승자’는 ‘개그’와 ‘계승자들’을 합친 이름이자 ‘개그로 승부하는 자들’의 준말이다. ‘개승자’는 지난해 6월 종영된 ‘개그 콘서트’ 이후 KBS 및 지상파 방송사

에서 약 1년 반 만에 새롭게 제작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다. 코미디언들이 팀을 이뤄 다음 라운드 진출 및 최종 우승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매 라운드 시청자들의 투표로 생존 결과 결정된다. ‘개승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KBS 코미디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KBS 2TV ‘개승자’는 11월 13일 첫 방송 예정이다.



이준기·이경영·김지은, SBS ‘어게인 마이 라이프’ 주연



배우 이준기, 이경영, 김지은이 SBS 새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 출연한다. 내년 방송 예정인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저승의 문턱에서 인생 리셋 기회를 잡은 검사의 절대 악 심판을 그린 사이드 웅성기다.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 ‘우아한 가’의 한철수 감독이 연출하며 제이, 김을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다. 이준기는 극 중 능력치 만점의 인생 2회차 검사 ‘김희우’ 역을 맡았다. 김희우는 냉철한 판단력, 끈질긴 근성, 강직한 결단력으로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에 칼을 겨누는 채 수사 의지를 불태우는 검사다.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인 조태섭의 지옥문을 열기 위해 인생 리부팅을 선택한다. 이경영은 자신의 위치와 힘을 이용

내년 방송 예정 해 악을 저지르는 정지인 ‘조태섭’ 역을 맡았다. 조태섭은 악의 얼굴로 정의를 위장한 키패드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로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검사 김희우와 대척점을 이룬다. 김지은은 천하그룹의 막내딸이자 천하경제연구소 소장 ‘김희아’ 역을 맡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해박한 지식, 타고난 배짱, 비주류까지 모두 갖춘 그녀가 자신의 가문에 불어 닦질 피바람을 막기 위해 김희우와 손을 잡는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하고 시원한 재미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한 드라마”라며 “이준기, 이경영, 김지은이 출연을 확정하면서 첫 스타트를 호쾌하게 끊은 것 같다. 2022년 방송을 준비 중인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있지, 美 빌보드 ‘아티스트 100’ 12위

그룹 ‘있지(ITZY)’가 미국 빌보드에서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5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전 세계 동시에 정규 1집 ‘크레이지 인 러브(CRAZY IN LOVE)’를 내놓은 있지는 빌보드 메인 차트 중 하나인 ‘아티스트 100’ 9일 자 차트에서 12위에 올랐다. 아티스트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집계해 순위를 매기는 주요 차트 중 하나다. 있지는 전날 빌보드가 예고한 것처럼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에 11위로 진입했다. 지

난 4월 발매된 미니 앨범 ‘게스 후(GUESS WHO)’가 기록한 148위에 서 무려 137계단 상승한 팀 자체 최고 성적이다. 이날 있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신기록을 기념하는 이미지와 영상을 게재하고 팬들을 향해 고마움을 전했다. 이들은 “저희의 첫 정규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에 올랐다”며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고, 이 기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큰 사랑과 지지를 보내준 민



지(MIDZY)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

장현성 합류한 ‘꼬꼬무’, 정규편성으로 돌아온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이야기(꼬꼬무)’가 오는 21일 정규편성으로 돌아온다. 뉴스

오는 21일 첫방송 SBS에 따르면 꼬꼬무는 21일 오후 10시30분에 첫 방송 된다. 지난 7월 시즌2를 21화로 막을 내린 후 정규프로그램으로 새 단장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꼬꼬무가 더욱 강력해진 이야기와 더 새로워진 느낌으로 재탄생했다. 장소를 옮겨가며 촬영하던 꼬꼬무는 정규편성을 기념해 새롭게 변신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꼬꼬무 세트장이 만들어진 것. 첫 녹화장에 들어선 장현성은 “이런 집에 살고 싶다”며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후 지난 여름, 꼬꼬무 정규편성 첫 녹화가 시작됐다. 여느 때처럼 세 명의 ‘장씨’는 이야기 친구들보다 먼

저 도착했다. 그런데 장현성이 사라졌다. 우리가 알던 익숙한 장현성이 대신 새로운 ‘장’씨가 꼬꼬무의 문을 두드렸다. 장현중 감독의 비장의 카드, 꼬꼬무 단골손님 장현성 배우가 새로운 장현성으로 합류한 것이다. 첫 녹화에 임한 그는 “조상님들께 이렇게 감사한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팔손 잔치까지 꼬꼬무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장현성은 뛰어난 연기력과 풍부한 감수성으로 이야기 친구들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평소 이야기 친구로 활약하던 그가 이야기꾼으로 바뀌어 들려줄 놀라운 이야기들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인다.